박소현의 섹.시.토.크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진실

남들이 보기에 그들 부부는 최고의 커플이었다. 남편은 명문대 출신의 전문직이었고, 아내역시 신붓감 직업 선호도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교사였다.

양가 집안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다 둘 다 외모도 탁월하고 성격마저 좋았다. 고위공직에 있었던 아버지의 올곧은 성품에다 온화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성격을 닮은 남편은 매너가 좋았다. 여자를 위할 줄 알고 마음씀씀이도 넓었다. 아내역시 다정하고 여성스러워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부부였다.

이들의 결혼은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여자 친구들에게는 더했다. 부잣집에 태어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도 한 번에 붙더니 부잣집에 인물·성격·능력 모두 갖춘 남자 만나 결혼하게 되고, 남들은 전세로도 꿈도 못 꾸는 30평대 아파트를 사서 신혼을 시작하니 어찌 부럽지 않겠나.

그러나 옛 어른들의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는 말씀은 어느 인생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친구들은 머지않아 알게 된다. 결혼 6개월만에 가진 집들이에서 '행복한 신부'는 입을 삐죽거리며 자신들이 섹스리스 부부라고 밝혔다. 인물도 좋지만 몸은 더 좋아서, 밤낮으로 아내를 호강시키리라 의심해마지 않았던 남자가 섹스리스라고? 그럴 리 없다는 친구들에게 그녀는 말했다.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섹스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섹스리스가 된거야."

완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결혼생활은 신혼여행에서부터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단다. 혼전순결을 부르짖어온 그녀 때문에 신혼여행이 첫날밤이었다. 달빛이 부서지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방갈로에서 첫날밤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녀는 첫 섹

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혼전순결을 주장하긴 했으나 섹스에 대한 정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영화 속 장면들을 조합해 그려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서툰 것과는 다른 의미였다. 남편의 행동은 서툴러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배려가 전혀 없었을 뿐이다. 처음이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녀에게 첫날밤은 거의 악몽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악몽만 이어졌다는 사실.

남편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는 말만 할 뿐 자신의 행동을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녀가 조심스레 요구했다.

"영화에서 보니까 키스도 오래 하고 애무도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하면 덜 아프지 않을까?"

> 결혼 6개월만에 '섹스리스'
> 밖에선 행복한 부부
> 집에선 불행한 부부
>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더라

노력해 보겠다고 하더니 정말 키스와 애무에 들이는 시간과 공이 더해졌다. 그러나 며칠 뒤 짧은 키스와 동시에 가슴 몇 번 만지고 바로 삽입에 들어가는 행동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지 말고 좀 더 해 봐."

그녀의 요구에 남편은 못 참겠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애무를 얼마나 하라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한 달 즈음 지났을 때, 그들은 섹스리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소리를 버럭 지른 이후 섹스가 하기 싫어졌다.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아들이라 그런지 자기밖에 몰라. 섹스도 제 욕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거야. 정말 질렸어."

그 시간, 남편 역시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이렇게 털어놓았다.

"어찌나 요구가 많은지 몰라.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거 못 맞춰주면 또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알아? 부부관계가 아니라 꼭 선생이 학생 야단치는 것 같다니까. 정말 질렸어."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행복한 부부였지만 침실에서는 불행한 부부였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그러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좀 맞춰보지 그랬냐고. 부잣집 아들의 안정감이 부잣집 아들의 이기심으로, 여교사의 똑똑함이 여교사의 까탈스러움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침대속의 세상이다. 맨 몸으로 부딪쳐봐야 알 수 있는 진실만이 존재하는 세상, 정답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답이 되는 것은 오로지 '경험' 뿐인 것이다. 〈연애칼럼 니스트〉

리빙 센스

보석관리법③

▲은

은제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게 변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미지근한 물에 치약을 풀고 몇 분간 담근 다음 칫솔로 여러 번 문질러 주면 좋습니다.

변색을 방지하려면 레몬즙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레몬 조각으로 은제품을 여러 번 문지른 후 물로 헹구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세요.

▲진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보석이므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진주 제품을 착용하기 전에 머리손질과 화장, 향수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착용한 뒤에는 순한 비누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해주세요.

▲상아

상아는 쉽게 때가 타기 때문에 솜으로 자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치약을 칫솔에 묻혀 문지르면 원래의 상아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9일(음 1월23일 己亥)

子 36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4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명예는 지키리라. 60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다. 72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84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않아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32

丑 37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49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61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하라. 73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85년생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0, 42

寅 38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50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 62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74년생 암중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24, 27

卯 39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51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록소록 살아난다. 63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75년생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39

辰 4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52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신용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64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7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처자의 건강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6, 28

巳 41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탈이 없으리라. 53년생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라. 65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1

午 42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이다. 54년생 서류와 윗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66년생 많은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78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22, 16

未 43년생 기력이 쇠하니 심장을 살펴보라. 55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애사가 발생할 수니 주변을 살펴보라. 67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7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1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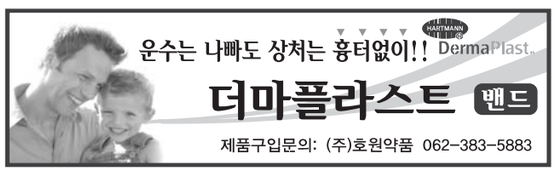
申 44년생 일고는 있으나 봄은 멀지 않다. 56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68년생 혼자 하는 게임이니 재미가 없다. 80년생 남의 말은 경청하되 결정은 혼자 하라. 행운의 숫자 : 23 ,43

酉 45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57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69년생 처음 가는 길이니 살펴서 행동하면 만사가 길사로다. 81년생 풍파를 만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행운의 숫자 : 02, 41

戌 46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58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70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82년생 큰 성공의 기틀이 마련되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11, 34

亥 47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59년생 크게 상심할 일이 생기니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83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하지하라. 행운의 숫자 :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식물인간 임수혁 선수에 '악플 테러' 야구팬들 분노

9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임수혁.

악성 댓글로 '보이지 않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악플러들이 또다시 이번 주 인터넷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번 주 악플러의 표적이 된 이는 스포츠 스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임수혁(39)선수. 지난 2000년 경기도중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져 9년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임수혁 선수에 대한 악플이 공개되면서 많은 야구팬을 경악하게 했다.

한 인터넷 스포츠 커뮤니티에 악플러들은 "임수혁이 뇌사에 빠진 것은 잘됐다", "8년이나 됐다. 그만 포기해라. 故 최요삼 선수처럼 장기기증 하지 그래?" 등의 악성 댓글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비하 발언과 성적 농담을 올리면서 네티즌을 분노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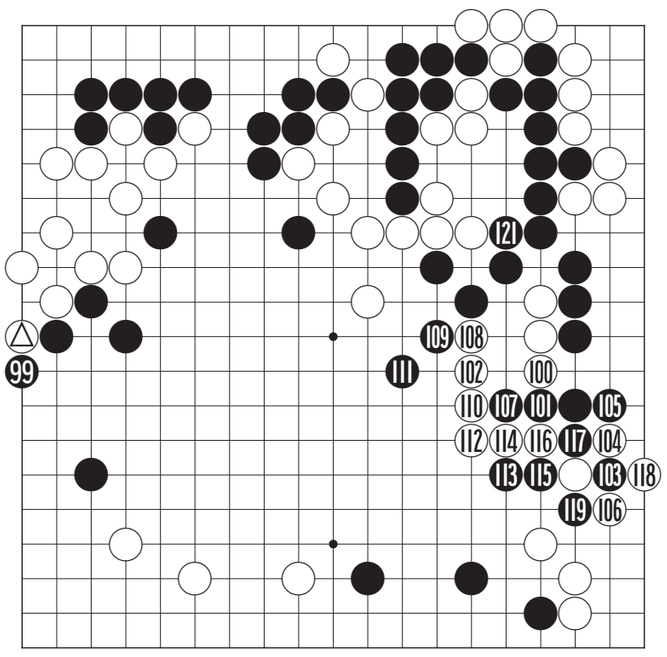
이들의 행위가 보도되자 악플러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이름 좀 알려보자", "고소하려면 고소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여 인터넷을 들끓게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악성 댓글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이 확대되자 일부 악플러들이 고등학생이라며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어린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문화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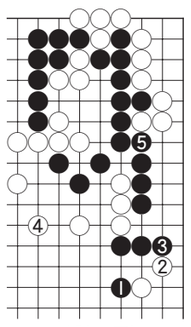
네티즌은 "나도 고등학생이지만 같은 고등학생이라는 게 부끄럽다", "저런 놈들 진짜 꼭 잡아서 처벌해야합니다. 임수혁선수 앞에도 데려가서 반성하게 해야합니다", "어리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꼭 경찰 수사와 함께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기우회

대항전


〈참고도〉

손해 수 연발 7보(99~121)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종길 5단 (광유회)

기용성 5단 시원하게 백 ㅅ로 패를 해소해 버리자 김종길 5단 고민 끝에 흑 99로 다시 막아갔다. 생각 같아서는 우변에 가일수를 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좌변이 초토화 된다.

이것으로 이제까지의 치열했던 패싸움의 결과는 백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후수로 다시 99로 막았다는 자체가 한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선수로 좌변을 정리하여 기세가 오른 기용성 5단 다시 손길을 우변으로 돌려 100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좌변의 패를 지고나서 다급해진 것은 김종길 5단. 이대로 끌려 가다가는 그대로 밀리게 된다는 생각에 평상심이 무너지고 있다.

흑 103이 다급한 마음에서 나온 손해수였다. 백 106까지 집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붙이고 5까지 참아둬야 했다. 그런가 하면 흑 113도 121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불필요한 수 였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LG세계기왕전 우승

이세돌 9단이 28일 서울시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최종국에서 한상훈 2단을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이세돌은 국제대회 4개를 포함해 총 8개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국내 최고 프로기사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다.

또 지난 삼성화재배와 LG배 우승만으로 4억5천만원의 상금을 확보, 지난 2001년 이창호 9단이 세운 역대 상금랭킹 1위 기록(10억여원)을 갈아치울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는 격년 혹은 4년마다 열리는 응씨배, 춘란배, 도요타덴소배 등이 열려 가능성이 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07>

I'm calling to confirm a reservation

예약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A : Thanks for calling the Hilton.
B : I'm calling to confirm a reservation. My name is John Smith.
A : OK, you have a reservation for the 5th. Is that correct?
B : Yep, that's it. Thanks a lot.

A : 감사합니다. 힐튼호텔입니다.
B : 예약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A : 예, 5호실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B :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have a reservation : 예약하다.
* 차량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 I'm calling to get details about your car.
* 에이미하고 얘기 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 I'm calling to speak with Amy.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07>

この辺(へん)はタクシ拾(ひろ)いにくいですよ。

이 근방은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A : 時間(じかん)がないからタクシに乗(の)ろうか。
B : でも、この辺(へん)はタクシ拾(ひろ)いにくいですよ。
A : 困(こま)ったなあ。約束(やくそく)の時間に間(ま)に合(あ)わないよ。
B : 駅(えき)まで走(はし)るしかないですね。

A :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 탈까?
B : 하지만, 이 근방은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A : 곤란한데. 약속 시간에 못 가겠는데.
B : 역까지 달리는 수밖에 없군요.

乗(の)ろうか : 탈까
拾(ひろ)いにくい : 잡기 힘들다
困(こま)る : 곤란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84>

我的钱包丢了。

지갑을 잃어버렸다

A: 你在找什么?
nǐ zài zhǎo shénme
B: 我的钱包丢了，怎么办?
wǒ de qiánbāo diū le,zěnme bàn
A: 里面有很多钱吗?
lǐmian yǒu hěn duō qián ma?
B: 是。
shì。

A: 뭘 찾아?
B: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A: 안에 돈이 많이 들었어?
B: 응

钱包	[qiánbāo]	지갑
丢	[diū]	잃어버리다
里面	[lǐmian]	안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94>

推己及人(추기급인)

밀 추, 자기 기, 미칠 급, 사람인

추기급인(推己及人)은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강조한 '충서'(忠恕)의 정신, 또는 '혈구지도'와 의미가 상통하는 말이다.

공자는 용서하다는 뜻의 '서(恕)'를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고 설명하였다. 직역하면 '자기가 바라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진실로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베풀라' (또는 세상에 표현하라)는 의미로 풀 수 있다. 이게 바로 추기급인(推己及人)의 정신이다. 진지하게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남을 이해하고 남의 욕망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욕망의 내용은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 욕망이 그 하나이고, 군자가 되기 위한 도덕적 자기수양이 그 하나이다. 유교의 중심이론이 된 '추기급인'은 후자의 경우다. 자신이 갈고 닦은 도덕적 수양을 남에게도 미쳐 도덕사회 구현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 부모에 대한 효(孝)의 마음을 밀쳐나가(推), 군주에게 충(忠)을 다하는 것(及)과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추기급인'을 '이기주의적 자세'라고 설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듯하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